

[TV]

TV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김혜수 "바람 연기는 경험반 상상력 반"

섹시 코미디영화 '...좋은 날'서 바람난 유부녀 이슬 역



도 자연스럽고 한데 설정이 너무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어요(웃음). 노출수위가 기대보다 낮고 했더니 "실망하셨습니다"하면서 웃는다.

지난해 영화 '타짜'에서 매력적인 누드 연기를 선보였던 김혜수(37)가 바람난 유부녀로 돌아왔다.

8일 개봉하는 섹시코미디 영화 '바람피기 좋은 날'에서 10살 연하의 대학생과 바람을 피우는 대담명량한 유부녀 이슬 역을 맡은 김혜수를 최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바람피기 좋은 날"은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일탈행위를 다룬 영화입니다. 하지만 불륜에 초점을 맞춘 다들 다들 외로움을 가진 인간이 애정을 주고 받는 행위, 자유롭게 좋아하는 열망을 표현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유부녀들의 바람을 매우 유쾌하고 유쾌하게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배우자들의 정신적 고통이나 가정파탄과 같은 어두운 측면은 외면하거나 대폭 생략했다.

"기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표현하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를 만든

는 과정에서 바꿨다고 들었어요. 그런 선택의 문제였죠. 결국 그런 것들에 짓눌리지 않고 좀더 편안하게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느끼고, 아니면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한 거죠. 제 생각엔 감독님이 줄타기를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피기 좋은 날'은 당초 예상과 달리 노출의 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지만 대사로 주고받는 성적 표현이 직설적이고 과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또 김혜수와 이민기, 윤진서와 이종혁이 벌이는 베드신 역시 수위가 높지는 않아도 바람을 피워본 사람이라면 무릎을 탁 칠 만큼 세부 묘사가 충실하고 리얼리티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적으로 연남남과 의장신 연기를 선보인 김혜수에게 그 같은 연기가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상상력의 소산인지를 물어보았다.

"물 다였던 것 같아요. 상황설정을 보면 상당히 웃기고 코믹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TV 6일 방송 프로그램 안내표 (KBS1, KBS2, MBC, KBC/SBS, EBS)

유괴사건 다룬 '그놈 목소리' 터졌다

개봉 첫 주 관객 146만명... '타짜' 앞질러

이형호 군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 '그놈 목소리'(감독 박진표, 제작 영화사 집)에 흥행 청신호가 들어왔다.

1일 개봉한 '그놈 목소리'는 4일까지 총 146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추석 시즌에 개봉해 첫 주

116만 명을 끌어들이던 '타짜'보다 앞서서

'타짜'는 전국 410개 스크린에서 개봉해 첫 주가 지나며 580개가 됐고, '그놈 목소리'는 450개 스크린에서 개봉해 관객의 호응으로 극장들이 자체적으로 스크린을

확대, 508개로 늘어났다. 최근 흥행작인 '미녀는 괴로워'는 개봉 첫 주 96만 명이 관람했다.

'그놈 목소리'는 자식을 유괴당한 부모로 등장한 설정구·김남주와 실제 범인과 흡사한 목소리로 영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 강동원 등의 호연, 공소시효가 끝난 유괴범을 잡겠다는 제작진의 의지가 담긴 마지막 장면 등이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국제보청기 (오래된 보청기(스타키) 보상판매 30%, 견전지(بات데리) 가격인하)

케이블·위성TV 6일

케이블·위성TV 6일 방송 프로그램 안내표 (YTN, 시네마 TV, 카툰 네트워크, 코미디 TV, Xports, 퀴니, GTV, 합정 TV, EBS1, KBS Prime, MBC MOVIES, SBS 드라마, KMTV, 리빙 TV, 생활정보, 월드이벤트 TV, Mnet, SBS 스포츠, MBC Drama, OCN, 슈퍼스포츠)

PBC 광주광역시방송 (www.kjpbcc.com)

TBN 교통방송

BBS 불교방송